

## 전도지를 버리지 마세요 🍷

한 선교사가 아시아의 힌두교 나라에서 어느 크리스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. 그때 한 절름발이 거지가 다가와 동냥을 했습니다.

선교사는 동전과 함께 그들의 언어로 된 전도지를 주었습니다. 그러자 곁에 있던 그 여인이, "선교사님의 전도지를 그에게 허비하지 마세요. 그는 결코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요" 라고 말했습니다.

그러나... 그리고 나서 3일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. 지난번 그 절름발이 거지가 선교사의 집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. 그는 어렵게 선교사가 사는 곳을 찾아내서 8마일을 걸어온 것입니다.

그는 이번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다른 전도지를 원했습니다. 새로운 전도지를 받은 그는 선교사의 집 문 앞에서 몇 시간을 앉아 그것을 공부했습니다. 그리고는 다시 와서 말하기를, "성경책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적혀 있더군요. 저도 그 책을 좀 빌려 볼 수 있을까요?" 라고 했습니다.

그 결과 한 달간의 교육을 받고 그 절름발이 거지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. 그는 기독교 서점의 경비로,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책꽂이의 모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.

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,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.

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장소와 상황 가운데 그 분이 택한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다.

<온세상으로 알게 합시다/리차드 R. 디리델>

🍷.....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. 「더 깊은 묵상」 제공